

장성군 길동무 꽃길축제, “꽃과 빛의 향연...황룡강 낭만 가득”

김한중 장성군수 “장성만의 매력 더해갈 것”

100억 송이 봄꽃과 수려한 야경을 지닌 장성 황룡강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마무리된 '장성 황룡강 홍(홍)길동무 꽃길축제(이하 길동무 꽃길축제)'에서 그 가능성과 경쟁력을 확인했다는 평가다.

최근 열린 길동무 꽃길축제는 강변 10리 길을 물들인 봄꽃과 환상적인 야간 조명이 많은 관심을 받았

다. 꽃 중에선 강가를 화사하게 장식한 꽃양귀비가 인상적이었다. 장미, 백일홍, 사스타 데이지 등이 풍성한 서삼장미터널과 생태공원 수국터널은 사진촬영 명소로 꼽혔다.

해가 기울고 나면 강변 곳곳에 조명이 켜졌다. 특히 미디어 조명이 설치된 문화대교와 용작교 아래 조형물이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난해 가을 조성한 종합운동

장 플라워터널과 함께 '황룡강 야경 3부작'을 완성했다.

봄꽃과 야경을 고루 갖추니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방문이 이어졌다. 군에 따르면 길동무 꽃길축제 기간 누적 방문객 수는 22만 7천여 명으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됐다. 먹거리와 농특산물 판매 수익만 1억 6천900만 원에 달했다.

'체험'도 호평을 얻었다. 홍길동 테마파크에 마련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은 가족여행 코스로 입소문이

나며 축제기간 내내 문전성시를 이뤘다. 첫날 500명으로 시작했던 방문객 수가 마지막 날에는 하루 4천 100명까지 늘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축제를 찾아 주신 방문객과 축제 준비에 헌신적으로 나선 군민, 공직자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한다”면서 “꽃과 빛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황룡강을 시작으로, 장성만의 매력을 더해갈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광중 기자

나주고향사랑기부제 대학 1호 동신대학교 1천500만원 쾌척

동신대학교가 나주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 제1호 대학이 됐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동신대 이주희 총장과 교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고향사랑기부금 1천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주희 총장은 “나주지역 대학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물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기부제에 동참하고 싶었다”며 “기부제뿐만 아니라 나주시와 동신대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가겠다”고 말했다.

동신대학교는 5년 간 총 1천억원 규모 지방 대학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글로벌 대학 30' 선정 준비와 함께 나주시와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농철 농촌 일손돕기, 지역 관광 활성화, 장애인 평생학습 운영기관 업무협약, 여름방학 초등학생 영어

캠프 운영 등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5일 나주시와 동신대, 에너지밸리 내 기업 36곳, 지원기관 22곳 관계자, 교수, 학생,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밸리 혁신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며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역량을 키우는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을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기부자)이 주소지 이외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기부 받은 지역에서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나주시는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을 확장하고 나주시에서 생산된 다양한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답례품을 추가 선정했다. 흥어, 나주곰탕, 국립순제원 체험권, 나주반 등 30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김동철 기자

화순군, 에너지바우처 접수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급년도 12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4만 9,800원, 2인 가구 20만 5,700원, 3인 가구 29만 2,500원, 4인 이상 가구 37만 9,6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원방식은 하절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상카드를 사용해 전기요금에 자동 차감된다. 동절기인 10월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는 전기, 도시가스 요금이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 등 유·LPG·연탄 구입비를 결제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농협, 우체국, 국민은행, 광주은행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사용에 있어 잔액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동절기는 난방요금이 가장 많은 에너지원으로 실물 카드 또는 가상카드를 선택해 변경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최근 대파 산업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대파 홍콩 수출 실증 상차식'을 개최했다고. 개최 목적은 영광군에서 재배하는 대파를 해외로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위해 '품질 검증, 가격 형성, 선호도 조사' 등의 시장성과 사전검증을 받는 수출 실증의 일환이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전국 수상스키 대회 개최

홍콩 수출 실증 상차식 개최...수출기반 마련 제고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최근 대파 산업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대파 홍콩 수출 실증 상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최 목적은 영광군에서 재배하는 대파를 해외로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위해 '품질 검증, 가격 형성, 선호도 조사' 등의 시장성과 사전검증

을 받는 수출 실증의 일환이며, 검증된 결과를 토대로 영광대파 품질 향상과 소비자 트렌드에 맞게끔 상품화에 노력을 기하기 위함이다.

또한 우리군 생산지에서 수확한 대파가 해외로 수출 시 유통과정에 발생하는 청엽갈변(변색), 물러짐, 저장성 저하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소비자에게 신선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수출상품에 품질관리 중점을 두었다.

더불어 상차식에는 영광군, 영광군의회,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 전남농업기술원, 지역농협 관계자 등의 참석으로 영광대파가 해외로 진출하는 인지도 제고와 수출기반 마련 방안 강구에 관심이 높았다.

/이정률 기자

담양군, 국토부 지역활력타운 공모 선정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이주민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담양군에서 대덕면 매산리 544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담양 대덕 매산지구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26만㎡ 규모로 조성되는 대단지 민간 협력사업으로 국비 97억 원, 지방비

30억 원, 민자 1천140억 등 총사업비 1천267억 원이 투입된다.

귀농, 귀촌하는 은퇴자를 주 대상으로 500세대의 주거단지과 예술인 특화단지, 농촌유학시설, 커뮤니티 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기반 시설이 단지 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커뮤니티시설에는 아동·노인 복지시설, 주민동아리실, 공동식당이 포함돼 있어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며, 생활기반 시설을 전면 개방해 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라남도과 국토교통부 평가 등 3회의 평가를 거쳤으며, 최종 평가에서 이병노 군수가 직접 발표에 나서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최종 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장진성 기자



한적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집나가면 '가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곡성여행
검색

2017년 곡성군 자연경관도면 최명석영양 수상작